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맡겨놓고 안달박달 안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을 걸어야 되느냐. 우리가 징검다리를 걸을 때는 항상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첩첩 물인데다가 이 징검다리로 우리 인생을 걸어가게 했다면 그것 잘못 디뎌서 물에 빠지겠나 하고선 그거 보느라고 다른 생각 할 여유가 없듯이, 오직 자기 주인공만이 자기를 지켜 주고 자기를 이끌어 주고 또는 모든 해결은 그로부터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자기 육신이 움죽거리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자기의 근본이 아니라면 움죽거릴 수가 없어요. 그게 빠지면은 송장이 되고 송장이 되면은 사람의 눈에 상대가 보이질 않아서 무효예요, 또.

그래서 공부는 살아 있을 때 공부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깐 열심히, 뭐 길다 짧다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오래도록 해도 이렇게 안되나.' 하지 말고 의기양양하게 그냥 살고 하되, 모든 거는 주인공이 하는 거라고 믿으세요. 믿지 말래도 믿어야 되죠. 자기 싹이 자기 뿌리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지도자의 마음자세에 대해

문) 요즘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종교계의 지도자들이나 다 자기 개인의 이익 때문에 전체를 살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인지라 부끄럽습니다만 지도자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예전에 달마 대사가 양 무제라든가 누구라든가 믿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화신으로써 방편이라도 써야 했죠. 어느 스님이 그 짚신 한 짝 얘기를 하기에 "그 작대기에다가 우린 지금 안 하고 다닙니까?" 그랬어요, 내가. "스님은 지금 당신 작대기가 당신 몸을 꿰 가지고 끌고 다기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렇죠!" 하곤 손바닥을 치면서 아주 퍽 좋아하시더군요.

그랬는데 그 달마 대사이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그럭하고 다니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신 한 짝을 하늘에다 놓고 신 한 짝을 땅바닥에 놔야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무의 세계에 내가 없고 유의 세계에만 있다면 유의 세계만 보고 물질만 보고 나가다간 정치를 못해요. 마음 세계. 이게 마음이라는 것도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한마음이라 한다면 한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게 방편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그러한 뜻을 볼 때에 그것은 묘지 속에 신 한 짝이 거기 놓여 있고 하는 건, 이 우주 속에 전부 하나에 뭉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기가 또 있고, 지금 현재에 화해 가지고 화신으로서의 그 방편으로 보여준 거죠. '나는 산 것이 없기 땜에 죽을 것도 없다.' 는 그 사실을 알려 주고, '너희들도 이렇게 작대기에다 꿰어 가지고 네 몸뚱이로 다니는 거뿐이다.' 그걸 일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양 무제는 그것도 그때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 참 미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볼 때에, 각 사찰이나 모든 종교인들을 볼 때 가톨릭교든 기독교든 다 봐도 지금 자기 제자들도 그렇게 가르치질 못하고 있고 또 신도들한테 그렇게 당겨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밝고 밝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그냥 갑니까? 필수적으로 우리는 해야 하는 문젭니다, 이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지금 안테나가 서지 않았으면 절대로 무전도 들을 수 없고 남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보이는 데서 듣는 거, 보이는 데서 보는 거, 보이는 데서 행하는 것만 알고선 그냥 생각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입력이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보이지 않는 데 50%를 완전히 알아서 그 보이는 50%로 내놓고 또 안으로 들여놓고 한다면, 그게 입력이 다 되니까 우주 이 법계에서 다 알고 그냥 선처가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전부 부하 아닌 게 없고, 전부 나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자리 아닌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병이 났을 때는 모두 무정물 생물 또는 식물이 전부 액체로 그 약이 돼 가지고 체내에서 모두 즙을 내서 분배하듯이, 그 우주간에서도 전부 분배를 해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자동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북하면 부처님은 병자를 낫게 해 주는 왕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다는 얘기죠. 당장 그 중생들이 자꾸 와서 자기 고달픈 걸 말하니까. 이 사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악업 선업으로서의 뭉쳐진 덩어리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거죠. 즐거움도 있는가 하면 거기서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시시때때로 나오는 것을, 그 입력이 돼서 자꾸 나오는 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 거기다가 되입력을 해 놓는다면 앞서 것이 없어지고 현실에 넣는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즐겁고, 정말이지 나날이 밝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아래로는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위로는 그 은혜를 갚는 능력이 생기고 또 두 마음이 아닌,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고,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한꺼번에 걷어쥐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당당함과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이러한 도리를 하는 데에 그 달마 대사가 그랬듯이 우리가 지금 한 짝은 무의 세계에 있고 한 짝은 유의 세계에 있다 이겁니다. 그 도리를 안다면 지금 어느 별성이나 어는 혹성에도 여러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를 하면 마음은 찰나에요. 오백 년 전으로 지금 금방 돌아갔다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법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왕!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가 이 벽이 없다. 저승 이승이 벽이 없다. 이쪽은 이승세계, 저쪽은 저승세계라 하고 전자의 그 선지식들이 요렇게 금을 그어 놓고 여기는 저승이니까 넌 들어오기만 하면 죽는다 요렇게 걸리게끔 해도 요, 이 도릴 공부한 사람은 픽 웃고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오죠. 그런데 덜 떨어진 사람은 거기 걸려서 못 넘어옵니다. 감히 어떻게 넘어옵니까? 모르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죽을 것이 두려운 거죠. 만약에 자기가 없다면, 둘이 아니라면 되는 거고, 또 그 스님과 둘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그냥 넘어와요. 그래서 이 도리가 아니라면, 이승 저승을 다루지 못한다면 이승 천자 저승 천자 노릇을 못한다는 얘기죠. 법왕 노릇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 오직 자기 주인공만이
>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이끌어주고
> 모든 해결은 그로부터 된다고
>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한는 이유가 …

문) 보통 우리 중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 공부를 해서 병을 낫겠다라든가 도를 이루겠다든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나 마음의 장난이 아닐까요?

답) 마음의 장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장난이 아니고 법에요, 진짜로 알면. 어떠한 일이 저거 했을 때 우리네는 뭐 주인공에다가 맡기는데, 이게 도가 넘어가면 맡긴다 안 맡긴다가 없이 그냥 보면은 법이요, 들으면 법이요, 그냥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무조건 거기에다가 맡겨 놔라, 맡겨 놓고 굴려라 이런 거죠. 그런데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맡겨 놓고 안달박달 안 합니다.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냥 맡겨 놓은 거죠. 변호사를 진짜로 믿고선 돈하고 서류하고 탁 디밀어 놓고선 그냥 그 변호사만 믿고 있는 있는 거나 똑같은 얘깁니다.

그런다면, 자기를 그렇게 믿는다면 변호사가 다 해서 이렇게 해 줄 때에, 때로는 뭐가 부족해서 변호사가 이기질 못했다거나, 또 자기가 너무 엄청나게 많이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게 이기질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하, 그것도 바로 내 탓이다. 내가 그런 많은 문제를 저질러 놨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금방 잘되랴. 그거는 졌을망정 그것이 또 잘 돌아가서 나중에 그거보다도 더 좋은 일이 생겨서 내 앞에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지는 게 아닙니다. 안되는게 아니다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된다 하는 거는 아니, 싹이 뿌리를 안 믿으면 뭘 믿습니까? 내 주먹을 안 믿으면 뭘 믿느냐고요. 형상을 믿을 겁니까, 이름을 믿을 겁니까, 허공을 믿을 겁니까. 정말 부처님이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고깃덩어리를 믿을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자기 몸부터 알아야 부처님의, 수억겁을 거쳐 온 그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 선지식들의 마음이다 할지라도, 그 벌레의 마음이다 할지라도, 중생들의 마음이다 할지라도, 내 배 속에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다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처신이 아쉬움이 남는다면 …

문)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돌이켜보면 그때의 처신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고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흐르는 시간만큼 지혜가 넓어졌다고 봐야 할까요?

답) 우리가 어저께도 과거, 한 시간 전도 과거듯이, 우리가 지내 놓고 보면은 그때는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 '아! 그거 조금 미흡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기는 것이 차원이 높아지는 징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높아지는 징조에 의해서 자꾸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탓할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초발심심 미묘법' 이라고 했듯이, 이 처음에 조그만 걸로 해서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우습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큰 거를 하나 조그만 거를 하나 똑같으니까요. 마음으로다가 체험하는 건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얽히고설키게 그냥 모두 일을 벌여 놓고 하게 되면, 조금 그것이 풀리려면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한테 풀려야 하니까 좀 더디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이런 점은 모두 여러분이 벌여 놓은 용도에 따라서 그것이 더디고 빠르고가 있는 거지, 그것을 '아이고! 내가 주인공을 이렇게 찾았는데도 안되더라.' 이러진 말아요.

왜? 안돼도 그놈이 하는 거고 돼도 그놈이 하는 거니까 누구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통신이 되게끔 해야 대뇌로 통신이 돼서 대뇌에서 이 사대로 하달을 해서 다 이렇게 그 작용을 해 주고, 또 때로는 이렇게 이 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해 주는 것이, 만약에 나가서 할 일이 있으면은,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듯이 그냥 여기에서 분자로 화하고 입자로 화해서 그냥 나가서, 그게 보살의 행이니까. 이제 지금 알기 쉽게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응신으로 화해서 나가서 전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 완화하게 해 놓고, 찰나에 그렇게 해 놓고 찰나에 들고 찰나에 나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마음먹기에 달린 거고 자기가 얼마만큼 자기 뿌리를 믿느냐에 따라 있어요. 자기가 어디서 생겼겠소? 자기 영원한 근본이 아니었더라면 엄마 아빠가 아무리 정자 난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종자가 없는데 어떻게 났겠소? 땅이 좋고 물이 좋다 해서, 씨가 없는데 어떻게 그 싹을 바라겠소? 그렇듯이 우리가 이 마음의 근본 종자의 주장자가 없다면 집도 비고 아무것도 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외려 자꾸 차원이 좀 넓어지고 둥글게 되는 거니까 감사해야죠.

※위 법문은 1992년 5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만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며,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바로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청색, 홍색) + 4GB 불경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홍국농산
유황오리, 다슬기엑기스 강력추천!!

함양군 HAM YANG GUN



보리밥과 약재 부산물, 다슬기 껍질을 유황과 함께 배합하여 먹여 키운 유황오리
100ml*90팩 = 449,000원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80ml*60팩(1박스) = 109,000원



지리산자락의 헛개줄기와 잎, 열매를 넣고 천연지하암반수로 진하게 달였습니다.
100ml*60팩 = 89,000원

많이 구매해주셔서 이에 보답하고자
"파격판매 이벤트 연장"

★결제계좌: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는 (주)홍국농산
- 판매처:칠성상회 (02-879-2007)

★카드결제시 홈페이지 방문
http://www.7-star.net
(네이버,다음에서 칠성상회 검색)